

다산포럼

찬바람 속 열기, ‘김지영 씨 현상’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이마에 닿는 찬바람이 싸하게 정신을 깨운다. ‘삼한사온’이 깨지고 ‘십한이온’으로 변한 현상은 강추위가 열흘 이상 이어지다 이를 정도 따뜻해지는 것이다. 이런 기후 변화 원인은 지구온난화 탓인데, 이런 지구 생태계 변화가 나 자신을 포함한 인류 탓인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하여 찬바람을 타며 맑아지는 머리로 한 해를 돌아보노라니 뜨겁게 터져 나온 젠더 이슈들이 마음에 불을 지른다. ‘2017년 신드롬’으로 꼽히는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조남주)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 소설은 ‘올해의 작가상’,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예스24의 ‘올해의 책’ 등등... 연말에 물린 여러 수상을 기록 중이며, 영화화 결정으로 머지않아 생생한 시청각 텍스트로 귀환할 기대작이기도 하다.

2016년 가을바람을 타고 출간된 이 소설은 2017년 내내 와이파이처럼 공명의

30여 년에 걸친 인생 여정

소설 제목 그대로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 씨는 대학 졸업 후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다가 31세에 대학 선배와 연애결혼을 한 후 딸 하나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이다. 그런데 그녀가 2015년 가을 어느 날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다. 왜 그녀는 남편을 ‘정 서방’이라고 부르고, 시부모님 앞에서 친정어머니에 빙의된 현상을 보인 것일까?

그 원인을 정신과 의사와 함께 환자인 김지영 씨 회고담을 통해 탐사해 내는 추적 과정을 보여 주는 목차도 르포문학 보고서처럼 연대순이다. ‘2015년 가을/1982년~1994년/1995년~2000년... 2016년’에 이르기까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30여 년에 걸친 그녀의 인생 여정이 담담하게 펼쳐진다. 겉으로 보면 바깥사람인 남편이 벌어 오는 수입으로 육아와 가정 살림을 하는 안사람으로 살아가니 안락해

야 할 텐데 그녀는 앓고 있다. 아픈 원인을 추적해 가는 회고담은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전통적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근대적 변형이 소소한 일상 속 세뇌 효과와 내면 심리 분석으로 펼쳐진다.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는 것을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살듯이’와 같은 대목이 그렇다. 이런 자동적인 서열 효과는 남녀 공학에서 남학생 번호가 먼저이고, 남학생이 먼저 발표하고, 여학생은 늘 그 뒤를 따르는 것에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우리 식 남녀유별 근대화 과정의 이면이 뒤집어진다. “김지영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14년, 대한민국 기준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결혼·임신·출산 그리고 어린 자녀의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출산기 전후로 현저히 낮아지는데, 20~29세 여성의 63.8퍼센트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다가 30~39세에는 58퍼센트로 하락하고, 40대부터 다시 66.7퍼센트로 올라간다”와 같은 대목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비혼화 경향과 1인 가족 현상의 밀그림을 자연스러운 소설의 흐름을 타고 공감하게 해 준다.

이렇듯 김지영이라는 평범한 30대 여성을 통해, 21세기에도 작동하는 봉건적 삼종지도 변형 효과는 젠더 관련 구체적 자료와 여러 기사들을 참조하며 객관적

거리를 두면서 불현듯 우리 자신을 조망하게 만든다. ‘호주제 폐지’ 관련 자료,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통계 자료,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포럼 자료,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한 OECD 자료 인용 대목이 그런 경우이다. ‘김지영’은 여성 이름뿐만 아니라 남성 이름으로도 불려져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김지영은 굳이 30대 여성이 아니어도 현재진행형인 우리 내면의 초상화와 오버랩된다.

한국 여성 특유의 병 ‘화병’

그녀가 미처 가는 해리장에 증상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미친년 프로젝트’ 예술 작업 시리즈와 연결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박영숙 사진작가의 성차별, 여성 혐오 고발 프로젝트는 ‘미친년·발화하다’ 사진전(아라리오 갤러리, 2016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미친년’이란 단어가 왜 핵심어로 공유되는 것일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 채 속으로 응축돼 터져 나오는 ‘화병’이 한국여성 특유의 정신병으로 국제 심리학 무대에 등장하는 문제는 뜨거운 과제이다. 적폐 청산 열기 속에 분열적인 근대화 풍경으로 내면화된 성차별 관습도 핵심적 해결 과제이다. 이런 열기를 타고 한국 사회가 평등 사회로 진화하기를 뜨겁게 소망한다.

NGO칼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

-한·중·일YMCA 평화포럼 개최에 즈음하여



문기준
광주YMCA 사무총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지난 6일 선언했다. ‘예루살렘-이스라엘 수도 인정’의 원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다. 오늘 나는 미국의 최대 이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 추구를 위해 이 방침을 결심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는 평화 협상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협약의 달성을 위해 이미 행해졌어야 할 조치이다. 이는 현

실을 인정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다.”

이 선언으로 기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중동 및 아랍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 심지어는 미국, 자국의 국민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은 전 세계에 있는 두 개의 화약고 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분단된 한반도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가치를 위해 평화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단체와 시민으로서 해야 할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것은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고 생명을 귀하게 살리며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1980년 5월 군부의 총알 앞에 광주 시민들이 죽임을 당할 때 독일 기자인 위르겐 힌츠페터가 전 세계에 광주의 실상을 알리며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금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방법이 열려졌듯이 분쟁의 위기가 처해 있는 곳곳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광주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김준태 시인의 ‘공알 하나’라는 시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

“누가 흘렸을까/ 막내딸을 찾아가는/다 주그러진 시골 할머니의/ 구명나 보따리에서/ 빠져 떨어졌을까// 역전 광장/아스팔트 위에/ 파이란 공알 하나// 나는 그 엄청난 생명을 집어 들어/ 도회지 밖으로 나가// 강 건너 발이랑에/ 깊숙이 깊숙이 심어 주었다/ 그때 사방팔방에서/ 저녁노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광주YMCA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 국가

YMCA 관계자 1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중·일YMCA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평화로 평화를 말한다 : 아시아 평화를 위한 현장과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맞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위기 상황에서 한·중·일 시민사회가 만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들의 경험과 정신을 공유하고 시민이 만드는 평화 실현 방안을 협의하는 일정이다.

이 일은 6자 회담, 북미 회담, 남북 대화 등 국가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가슴 벅찬 의미이다.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 또한 광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주가 진정한 평화주의자들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 고

LA 와츠 타워와 양림동 펑귄마을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건축의 본질은 삶이 영위되는 공간의 구성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람들은 건축의 독특한 모양이나 크기, 혹은 색채나 문양에 열광한다. 건축은 공학이 아닌 예술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만큼 실용도 중요하지만 독창성과 예술성을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

한번쯤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건축물들은 모두 독특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특이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한 나라,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그 독특함과 아름다움에 반기라도 들 듯 폐품으로 만든 그로테스크한 건축물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와츠 지구에 철골로 만든 기괴한 모습의 와츠 타워(Watts Tower)다. 이탈리아 출신이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건설노동자 시몬 로디아(Simon Rodia)가 만든 타워다. 완성을 위해 33년 동안 열정을 바친 집념의 결실이기도 하다. 기이한 구조물 17개가 연결된 조형물로 높이가 30m에 달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모르타르를 바른 철선에 조개껍데기, 사금파리, 골라 깬 파편 등 별의 별 물건이 다 붙어있다.

생활 폐기물을 모아 붙여 만든 와츠 타워는 로스앤젤레스의 장공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있다. 놀라운 건 아무런 기계 장비 없이 혼자 힘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이른 아침이나 밤에 건설했다는 사실이다. 한때 LA시는 이 기괴한 탑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철거하려 했다.

그러나 로디아의 혼이 담긴 와츠 타워는 다행히 철거를 모면했고 자유의 상징으로 남았다. 더욱이 역사성을 인정받으면서 국가적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영화 ‘라라랜드’에 소개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와츠 타워는 폐품이 창조적인 예술로 업사이클(Upsy-cl)된 대표적 사례이다.

500년의 마을 역사를 가진 양림 오거리

에 펑귄마을이 있다. 광주를 소개할 때 딱히 관광지가 없다는 푸념은 옛말이다. 요즘 가장 핫(Hot)한 곳이 펑귄마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펑귄마을에는 펑귄은 없다. 노인들이 주로 사는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걸음걸이를 빛내 펑귄마을이라는 귀여운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펑귄마을은 한 주택이 전소된 자리에 쌓인 쓰레기와 버려진 물건을 마을 주민들이 주워와서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켜 탄생한 곳이다. 시계, 전자 제품, 피아노, 막걸리 병 등 폐품을 이용해서 골목 담벼락에 또다르다 불현 마을 풍경을 이 한 해 2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는 것이다.

펑귄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시간이 멈춘 시계들이 장식돼 있는 펑귄 시계점. 추억의 달고나를 체험할 수 있는 펑귄주막, 폐품으로 만든 정크 아트가 모인 펑귄깃발이다. 골목 벽에 붙은 아름다운 시와 아포리즘을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근대 역사문화마을 지구의 세련된 건축 분위기와 달리 쇠락한 거주지였던 펑귄마을을 추억이 담긴 골목으로 변모시킨 것은 바로 마을주민들이다.

업사이클은 폐기물이나 폐자원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

가 있는 물건이나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와츠 타워와 양림 펑귄마을은 업사이클 관광지이다. 폐품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한 사람은 와츠 타워라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었고, 양림동 마을 주민들은 광주의 대표 관광지를 만들었다. 폐품으로 거꾸들인 관광의 부가가치는 주변 관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들의 이런 무모한 생각과 열정이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기억을 소환하여 사람과 이웃을 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특한 정크 아트를 보고 있는 동안 한 번쯤 쓰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살림살이 파파파하다고 하지만 살기 좋아진 세상임엔 틀림없다. 필자의 아파트에도 제법 쓸만한 물건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온다. IMF 경제위기 이후 ‘아나바다’ 운동으로 자원을 아껴쓰고 나눠쓰던 때가 엇그제인데 말이다.

아직도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폐품을 모아 누군가 제 2의 업사이클을 광주 관광지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그들은 세계적인 건축가도 아니고, 유명한 예술가도 아닌 바로 열정을 가진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었음을 기억하자.

社 說

갈수록 줄어드는 기부, 한파에 얼어붙었다

가난한 사람의 겨울나기만큼 딱딱한 것은 없다고 한다. 올해는 가뜰이나 일찍 찾아온 한파에 겹쳐 기부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광주 지역 복지시설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기부가 줄어든 것은 ‘어머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지난 8월 사이버 기부 단체의 100억 원대 착복 사건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기피 현상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기업 기부나 고액 기부, 장기 약정 기부가 주를 이루는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형 모금 단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역 사회 전반의 기부에 대한 정서는 냉담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복지시설일수록 기부금과 후원 물품이 줄어 이충고를 겪고 있다.

특히 광주의 아동 양육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로, 시설 운영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시설엔 최근 수개월 사이 기부금이 20% 이상 줄었다고 한다. 광주의 한 시설은 기부 기피 분위기가

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연례행사인 성탄절 프로그램을 없애는 등 내핍 생활에 들어갔는데 어린이용 내의·장갑·모자 등 방한용품 후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한다.

일부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착복 등에 따른 배신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기부금을 가로챈 파렴치범은 사법기관에서 엄벌하겠지만 이러한 일부의 범법 행위 때문에 소의 계층을 돕는 시민들의 기부가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복지시설들은 지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기약을 폐척하는 것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아니다.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내는 1만 원의 기부든, 불우 이웃 돕기로 내놓는 단돈 1000원의 기부든, 모두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이다. 이 겨울 거리에서 구세군 범비를 만난다면 또 그냥 지나칠 것인가.

민생 외면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낼 셈인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어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아무래도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열렸다. 연내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 없다는 점이 합의를 이끌었다. 그런데도 개최 1주일이 넘도록 정상 가동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할 거라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의 개점휴업은 자유한국당이 강경 투쟁 기조를 천명한 탓이 크다. 새로 들어선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해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경제와 민생 법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민생을 표방한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년이 늦었고, 2단계까지 계산하면 계획대로 2025년에 완공돼도 호남선 KTX는 경부선 KTX에 비해서 15년이나 늦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한국당은 팽개치려만 찾으려 삼일위 문을 걸어 잠그는 작태를 반복한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운영위원회가 발족한 날 사위에는 다른 삼일위에서 여야 합의한 비정점 법안 110여 건이 계류돼 있지만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 한 건 상정하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끝날 수도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 정파적 이익에 약동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경제와 민생 법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민생을 표방한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기원전 5세기 중반, 도시국가로 구성된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양강 구도를 이루며 대치했다. 아테네는 초강대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됐다. 아테네가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자 전통의 육군 강국 스파르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축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간 긴장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으로 발전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장군으로 전쟁에 참가해 생생한 경험과 증언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담았다.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이 이념이나 도덕 문제가 아닌 국제적 역학 관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국력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전쟁으로 비화했다는 것이다. 이 전쟁으로 패자인 아테네는 물론 승자인 스파르타까지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후세에 사람들은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부딪치게 되는 상황을 가리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르게 됐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

스 교수는 ‘불가피한 전쟁’이란 저서에서 지난 500년간 지구촌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발생한 것은 16번이었고 이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국에 대항한 독일의 세계대전과 미국에 도전한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대표적이다.

엘리스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진단했다. 몸집이 커진 중국과 미국은 긴장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도전에 헤게모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어떤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마다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높이고 외교대 비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통령이 ‘훈남’을 했다는니 하면서 홀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자국 외교를 직접 잡기보다 지켜보는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